

날개 꺾인 항공업계... FSC·LCC 나란히 '실적 추락'

〈대형항공사〉

〈저비용항공사〉

대한항공 986억 손실 등 실적 악화
日 규제로 항공화물 수송량도 급감
일본 보이콧·中 운항신청 중지
성수기인 3분기도 '먹구름' 전망



대한항공 보잉787-9.

국내 항공업계를 둘러싼 실적 악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양대산맥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는 물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저비용항공사(LCC)도 올해 2·4분기 일제히 적자를 기록하면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환율 상승의 영향이 컸다. 여기에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촉발된 반일 분위기로 여행객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항공사들의 하반기 실적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의 2분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대한항공

은 986억원, 아시아나항공은 1240억원, 제주항공은 274억원, 진에어는 266억원, 티웨이항공은 258억원, 에어부산은 219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시작된 일본과 관계 악화는 항공 화물 수송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1~7월 인천공항을 통해

수송된 화물량은 총 156만49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 감소했다. 국내 항공 화물은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해 수송된다. 대한항공은 올 들어 화물수송량이 10.5% 감소했고, 아시아나항공은 8.5% 줄었다. 두 항공사가 국내 항공화물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물량이 감소하

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0월부터 국내선 화물서비스 일부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실적 악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2분기 적자는 환율 상승과 고유가에 따른 부담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하반기에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면서 항공 수요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항공업계는 3분기 성수기를 맞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시작된 반일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여행객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여행객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등 보이콧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LCC 업체들의 실적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불매 운동 영향으로 일본 노선 운항과 감편에 나섰던 LCC들은 중국 노선을 대체지로 삼고 노선 재편에 나섰지만 중

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0월부터 국내선 화물서비스 일부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실적 악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2분기 적자는 환율 상승과 고유가에 따른 부담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하반기에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면서 항공 수요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항공업계는 3분기 성수기를 맞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시작된 반일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여행객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여행객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등 보이콧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LCC 업체들의 실적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불매 운동 영향으로 일본 노선 운항과 감편에 나섰던 LCC들은 중국 노선을 대체지로 삼고 노선 재편에 나섰지만 중

국 항공당국이 운항 신청을 중지한다고 기습 통보했다.

여기에 인기 여행지 중 한 곳인 홍콩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4월부터 홍콩 시민들이 벌여온 범법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들불처럼 확산되면서 국내 여행객들의 홍콩 여행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일본과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운항을 이어온 LCC 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 '실적 쇼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2분기 원화 약세와 항공유 가격 인상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국내 항공업계가 3분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상치 못한 악재가 계속 발생하면서 올 하반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운항 효율성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용인서 버린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경쟁률 96대 1'

고용 창출, ICT 발전 기대감에
지자체·민간, 유치 경쟁 치열

네이버가 새롭게 지을 제2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뜨겁다.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136곳이 데이터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의향서를 제출했고, 이들 중 96곳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해 9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96개의 제안 부지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우선협상부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 및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연내 최종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부지 수는 미정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네이버는 강원도 춘천 데이터센터 '각'에 이은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용인 공세동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017년 세웠다. 투자금액은 5400억원이었고 완공은 2023년이 목표였다.

하지만 공기질 악화, 유해세균 발생, 전자파 발생 등 피해를 우려한 공세동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타협점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네이버

을 찾지 못해 계획이 무산됐다. 그 후 네이버는 지난달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지 제안 공개 접수를 시작했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저장장치 등 전산설비를 구동하는 공간으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심장'으로 비유되는 핵심 시설이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반 인프라로,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

이 전 세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

공세동의 거센 반대와 달리 네이버의 공개 접수에서는 136곳이 몰리며 유치 경쟁으로 거센 모습이다. 지자체는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교통 편의성, 낮은 기온 등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자체가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일단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 추가로 관련 IT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자체의 세수 증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네이버 춘천 데이터센터를 통해 170여 명의 인력이 창출됐다. 제2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규모도 약 2배 크게 지어지는 만큼 인력 창출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이 뜨거운 만큼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선정과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2nDC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 중이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의 번째 데이터센터는 첨단산업의 근간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해 데이터 주권을 지켜가겠다는 네이버의 약속"이라며 "부지선정을 시작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애플 '한국 진출 20년' 일자리 32.5만개 창출

애플이 국내 진출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고용 인원을 밝혔다.

애플은 19일 애플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고용 창출 페이지를 개설해 6월 30일 기준 한국 지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 수가 500명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32만5000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애플 직원 수는 그동안 업계 추정으로 알려졌을 뿐, 정확한 수치가 알려진 적은 없다. 애플은 "20여년 전(1998년) 단 2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디자이너, 제작 전문가, 리테일 직원, 고객 서비스 담당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0년 이후 직원 증가율은 1500%다. 특히 작년 국내에 처음으로 문을 연 애플스토어의 개장 준비를 위해 2017년 직원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이와 함께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 수가 32만5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내 부품사 등 협력업체를 통해 12만5000여 명, 애플스토어 생태계를 통해 20만명이다. 이는 컨설팅 업체인 애널리시스그룹이 2018년 애플이 한국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지출한 투자금액 정보를 토대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 수를 산출한 것.

구체적인 국내 협력업체 수와 사례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애플은 국내 협력업체 200여 개사와 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 6만명, 도매 및 소매·차량 수리 2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 활동 1만명, 행정 및 지원 서비스 활동 8000명 등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팟빵, 美 최대 팟캐스트 원더리와 맞손... '닥터데스' 韓 상륙

내용 재구성해 한국어로 론칭
주요 콘텐츠 '오디오 드라마'

오디오 콘텐츠 포털 팟빵이 미국 최대 팟캐스트 콘텐츠 제작사인 원더리(Wonderly)의 콘텐츠를 한국에서 추가로 선보인다.

팟빵은 올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를 얻은 원더리의 '닥터데스(Dr. Death)'를 첫 작품으로 선정하고 한국어로 공식 론칭했다고 19일 밝혔다.

원더리의 첫 한국 론칭 작품인 '닥터데스'는 미국에서 벌어졌던 실화를 바

탕으로 '닥터데스'라고 불리워진 던치 박사가 33명의 환자에게 죽음의 수술을 자행했던 사건을 실감나게 재구성한 작품이다.

원더리는 2016년 20세기폭스의 후원으로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로 3년만에 '닥터데스(Dr. Death)'를 비롯해 80여 개의 인기 팟캐스트를 전세계 청취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미국 최대의 전문 팟캐스트 제작 기업이다.

팟빵은 원더리와 공동으로 올해 초부터 한국 청취자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원더리(Wonderly)는 초고

속 모바일 인프라와 수준 높은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팟캐스트 시장이 팟캐스트 시장을 가속화할 전력적 거점중 한곳으로 평가했다.

기존의 한국 팟캐스트 콘텐츠가 주로 진행자들에 의한 토크형 콘텐츠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면 원더리의 인기 팟캐스트는 오디오 드라마 형식을 비롯해 현장감 있는 콘텐츠가 많아 한국 청취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더리의 디클랜머(Declan Moor

e) 해외총괄 이사는 "원더리는 한국의 최대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과 제휴를 통해 한국의 청취자들에게 원더리의 팟캐스트를 들려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팟빵은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제작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팟빵의 플랫폼은 매우 혁신적으로 청취자들에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팟빵 임석영 이사는 "닥터데스를 시작으로 원더리는 미국에서 인기를 거둔 팟캐스트를 한국 청취자들에게 적합한 팟캐스트로 재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며 "원더리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